



“
협회의 주요기능을 강화하여
안정적 재정확충과
방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남은 열정을 쏟겠습니다
”

「강병화 한국방재협회장 취임 인터뷰」

프로필 : 1953년 경남 진주 생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경기도 화성에서 공직 생활 첫 발을 내딛 후 내무부, 행자부, 청와대 등을 거쳐 2004년 소방방재청이 개청되면서 심사평가, 재해영향평가, 재해경감, 복구 지원 과장을 수행 했으며 2009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방재관리 국장을 역임, 36년간 방재분야 공직생활을 했다.

강병화(전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 회장은 지난 5월 21일 한국방재협회 제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방재협회가 설립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방재행정 경험이 풍부한 관료 출신이 수장이 된 것이다. 방재정책의 소통과 조정을 위한 협회 기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강병화 회장은 긴밀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협회 전문위원회를 소방방재청과 방재연구소의 업무와 매칭시키고, 회원중심의 방재전문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협회 조직의 창조적 변화를 주도 하고 있다. 강병화 회장을 만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주요 사업계획을 들었다

[대담 · 김창완 편집위원장/정리 · 김영희 편집위원]



회장님은 취임식 때 “생동하며 진보하는 방재협회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임기동안 이를 위한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우선 회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시고, 믿고 지지를 보내주신 회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36년간의 방재분야 공직 생활에 대한 경험과 열정, 헌신으로 협회의 창조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어둠의 터널 끝을 지나면 밝은 빛을 볼 수 있듯이 창조적 변화를 하려면 반드시 고통의 터널을 거쳐야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라 민·관 협력의 긴밀한 체계 구축에 의한 방재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방재환경의 변화는 방재협회의 창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창조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협회와 소방방재청, 방재연구소간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협회 회원발전과 더불어 "열정, 생동하는 방재협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협회의 주요기능을 강화하여 안정적 재정확충과 방재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설정하고 계신 구체적인 업무 등 추진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방재협회 역할과 기능 확대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업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행동을 통해 실천해 나갈 예정입니다

- 첫째, 회원가입확대와 회원들을 위한 상시정보제공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 One-Stop형 방재정보서비스 시스템 개발·구축으로 평소 회원들이 알고 싶어하는 소방방재청 법령, 지침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및 재해예방·복구사업 설계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상시 정보체계 구축
 - 정부, 회원간 협회 발전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가동
- 둘째, 대학교수님 등 전문가 회원으로 구성, 용역사업의 위탁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 향후 추진될 방재청 정책연구용역, 국립방재연구소 위탁연구용역, 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부설기구 활성화를 통한 연구용역의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 강구
 - 신규과제 발굴, 전문위원회, 부설연구기관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박사 및 기술사 회원님들의 적극적 참여 활성화
- 셋째, 방재분야 엔지니어링업에 대한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 제도개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방재분야 입찰자격 사전심사제도(PQ)를 도입, 대행업무별 방재분야 수행평가기준을 개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등을 위한 지원
 -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등 충실한 방재정책 수립을 위해 현실성 있는 방재품셈을 개정 지원
- 넷째, 원로 선배님과 전문가 후배님의 상시 교류 및 정책지원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 방재분야는 학제융합적이고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협회내 원로 회원분들과 전문가 회원분들이 상시 모임과 토론이 가능한 공간 마련
- 다섯째, 협회와 정부, 연구소, 산업체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 주요 현안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MOU 체결 및 재해경감대책협의회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회의 위탁운영 추진



회원과 함께하는 생동하는 방재협회

3대
추진전략

주요기능
강화

안정적
재정확충

역량제고
제도개선

5대
정책방향

● 방재분야 제도개선, 새로운 업무분야 창출

-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제도 개정으로 업무영역 확대
- 방재정책 수립 및 용역대가의 현실화를 위한 표준품셈 개정
-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회 참여
-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구상

●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

- 회원가입과 회비납부 내실화
- 연구개발사업의 직접수행 제도보완
- 신규 교육수요 창출과 지방교육 활성화 및 보수교육 제도화
- 사업단 간접비 및 정부 위탁대행경비 예산 확대

● 협회의 주요기능 보완 위상 강화

- 회장단/임원이 전문위원회 운영을 총괄
- 정부 및 회원의 수요에 부합한 전문위원회 구성
- 산·학·관의 참여와 지원기능 강화
- 협회 조직 및 기구 전면 개편

● 방재정보시스템 구축 상시정보 제공

- 방재저널 격월 발간 및 홈페이지 등 사이버공간 확대
- 편집위원회의 활성화로 차별화된 양질의 정보 생산
- 방재정보시스템을 온라인으로 개발 실시간 제공

● 협회와 정부, 연구소, 산업체간 네트워크 구축

- 주요현안 추진을 위한 MOU 체결
- 협회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원로 및 전문가의 상시교류로 정책지원의 장 마련
- 정부, 회원간 협회 발전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회장님께서 바라보시는 협회의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협회가 지금보다 더욱 발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 자연재난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방재협회는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대책법에 명시된 유일한 특수법인으로 그 위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 최근 자연재해는 극한 기상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영향 등으로 그 양상이 대형화되고, 예측이 점점 난해해지며,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해의 외력과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재해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의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활성화 될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 방재협회가 극한 기상대비 재해예방과 피해저감을 위한 방재분야의 제도 개선으로 새로운 업무분야를 창출하고, 안정된 재정기반을 구축하고 회원과 협회 및 정부, 연구소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협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방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저는 임기 동안 회원 및 관계 전문가 여러분과 더불어 방재협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 나가하고자 합니다.



회장님께서 36년간의 공직생활로 방재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방재 분야의 문제점과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한 고견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회장님의 시각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제가 방재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기후변화에 따라 폭설, 집중호우, 태풍, 한파 등에서 100년만의 기록을 갱신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작년 9. 21일 수도권에서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기록적인 폭우로 지하철역사, 지하건축물 등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5시간 동안 240mm가 내린 것입니다.
 - 앞으로 방재인들의 도전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후변화를 고려하고 도시별 특성에 맞는 방재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홍수, 급경사지 붕괴 등에 대한 방재성능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방안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5월 11일 방재시설별 설계기준을 포괄하는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여 각 시설물의 성능이 통합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특히 지난 3월 11일 일본 동해 대지진은 결코 우리에게도 남의 나라 일로만 차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 정부는 지진과 지진해일에 대한 종합대책을 재수립하고 있고, 내진성능 향상, 대상 시설물 확대, 지진해일 대응체계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 이런 상황 속에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민간 전문가 분들의 지식과 풍부한 경험으로 결집된 역량이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 방재정책과 기술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긴밀한 민, 관협력체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밖에 회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 故 정채봉 시인은 「새 출발 하는 날 신발 끈을 매면서 먹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한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 늘 바다를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새 마음이기에 깊어지며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소방방재청의 정책과 제도 선진화를 뒷받침하고, 방재협회 역할과 기능 확대 등을 위해 새로운 정열을 쏟기 위해 신발 끈을 맷습니다.
 - 재해· 재난 현장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지방자치단체 및 방재관련 업체, 그리고 학계의 방재 전문가 여러분과 우리 협회 제5대 임원진이 생동하는 방재협회를 잘 가꾸어갈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회원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시기를 마음깊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